공동체 소식

연중 제25주일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9/27(수):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9/29(금):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9/30(토):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 10/1(주일) 오전 11:00
- 위령미사봉헌 신청은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 한가위 맞이 9일기도 : 9/23(토)-10/1(주일)의 9일 동안,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 친척, 은인들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12쪽)를 미사 전에는 공동으로,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바칩니다.

▣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10/3(화)-저녁 7:30(성당),
10/4(수)-저녁 7:30(성당),
10/5(목)-오전10:00(교육관).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10/7(토)-오전10:00(성당).

▣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9/24(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교육관.

▣ 홀리 트리니티(Holy Trinity) 본당 성물방 안내
※ 내용: 홀리 트리니티 본당 성물방에 한국산 성물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우리 공동체 신자들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61	221	502	3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 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박옥희.
차 주	추석맞이 음식나눔, 행사 1조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감영진 라파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17	51명	251달러	500달러
(총 2세대) ※지난주 교무금 합계를 3,065에서 2,865달러로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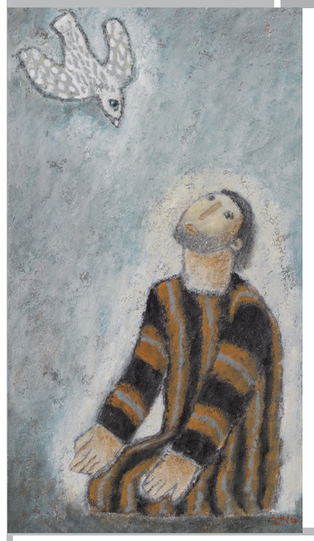
연중 제25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7년 9월 24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늦게 온 일꾼에게도 처음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말씀에 스며 있는 지혜에 마음을 열게 하시어, 아침부터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한 수고가 헤아릴 수 없는 영예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두 아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마태 21,29-30)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사람과 대답만 해놓고 그 뜻을 저버린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루동안 수없이 내뱉은 말, 셀수 없는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용서를 청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6-9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화 답 송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20ㄷ-24.27ㄱ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쉐 마

모든 것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복음에서 포도밭 임자는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 집을 나섭니다. 여기서 포도밭 임자는 하느님이고, 포도밭은 하늘 나라이며 일꾼은 하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포도밭 임자, 곧 하느님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당신 나라인 포도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데리고 오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삯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삯이란 하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삯,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밭 임자이신 하느님은 아홉 시쯤 나가 별일 없이 서성이는 이들을 당신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포도밭 일에 대단히 적합해서가 아니라, 밭 임자가 일부러 다른 일을 찾지 못하던 능력 없는 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밭 임자는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 임자는 오후 다섯 시에도 장터에 나가 하루 종일 일 없이 서 있는 이들도 모두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포도밭 임자는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삯은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이는 맨 먼저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일찍부터 일을 했던 이들이 불평불만을 터트립니다. 왜 먼저 온 자신들과 늦게 온 저들을 똑같이 취급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포도밭 임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에 대해 왜 따지냐며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포도밭 임자 자신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후하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에 관해 따져 물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하는 시간이나 양을 기준으로 은총을 받는다면, 그렇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각자에 따라 크게 다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느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이고,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심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죄인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방식을 기꺼이 취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의 이런 일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에서 말하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네 생각과 같지 않고, 하느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느님의 일 방식에 관해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을 죄에서 구해내시어 당신 포도밭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의 필리피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포도밭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몫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으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마태 18,33.35)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지 않고 하느님께로 뒤늦게나마 돌아서는 죄인들을 박대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마저 모조리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사도(使徒)

'사도'는 그리스어로 'Apostolos' 즉,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가까운 협조자요 증인으로 부르셨던 열두 제자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공생활'을 함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탁월한 사도였던 바오로는 생전의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도로 뽑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사도 9,1-19 참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바오로를 찾아볼 수 없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오로 사도는 '모든 민족의 사도' 또는 '이민족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갈라 2,7-9 참조) 바오로 사도는 팔레스타인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소아시아, 로마 등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성령강림 이후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를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온 세계를 향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가르침,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자신들이 지녔던 사명과 전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사도전승이라 부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사도직을 계승한 주교 등 성직자뿐만 아니라 사도적 활동을 하는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라는 것과 교회 건설에 평신도들도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교령 25)을 성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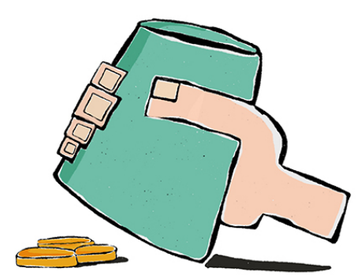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복음묵상

본전

그게 말이지.
원래 내 것이어야지 '본전'이라 부르는 거 아닐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본전, 본전' 하는 건 참 우습지 않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태 20,15)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